

청년이 알리는 청년정책... 광양시 ‘유스크루’ 본격 활동

정책 체험기 콘텐츠 제작해 블로그·인스타·유튜브에 홍보
꿈터 프로그램 등 현장 취재...제1기 6명 올 연말까지 활동

“광양에 사는 청년으로서 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 참여하고 홍보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유스크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광양을 위해 모범적인 시정을 널리 소개하는데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광양시 청년 서포터즈 ‘유스크루(Youth Crew)’의 1기 회원인 이유진(광양읍·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씨가 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향후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유스크루’는 광양청년꿈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의 청년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널리 전하는 역할을 하는 시 서포터즈이다. 광양시 청년프로

그램 운영 센터인 ‘광양청년꿈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 제1기 유스크루는 6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지 약 4개월이다.

지난해 시 블로그 기자단으로도 활동했던 이유진 씨는 “광양시의 청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장대여사업에 대해 소개해 보고 싶다”면서 “신청해서, 입어보고, 드라이클리닝 후 반납하기 까지 직접 체험하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알아보고 싶다”며 첫번째 활동 사업을 설명했다. 이 씨는 자신의 체험 영상을 블로그에 올려 정장대여사업을 자세히 소개하게 된다.

이처럼 서포터즈들은 청년의 날 행사, 꿈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시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제1기 유스크루를 운영하며, 참여자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청년꿈터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참여 인원과 활동비를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영숙 광양청년꿈터 센터장은 “유스크루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체험하고, 또래 청년의 눈높이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청년꿈터는 광양청년꿈터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일과 삶을 균형있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광양시의 청년센터(플랫폼)이다. 또 지역 청년들을 위해 ▲드림플러스 ▲청년 감동 날개 ▲유스 온 클래스 ▲마음보듬 상담소 ▲취업지원 컨설팅 데이 ▲청년 인력풀(DB)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는 광양시 '제1기 유스크루'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광양시, 극한 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

금이·청암 등 배수펌프 교체
시설물 현장 점검도 강화

광양시가 관내 주요 배수펌프장의 핵심 설비에 대한 교체 및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시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침수 예방의 핵심 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설비를 개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우선 진상면 금이1 배수펌프장과 청암1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노후 배수펌프 2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배수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태인동 명당 배수펌프장과 진월면 금동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배수펌프 2대에 대해서는 ‘오버홀(Overhaul)’ 작업을 완료했다.

오버홀은 단순한 수리를 넘어 설비를 완전히 분해한 뒤, 각 부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은 새것으로 교체해 정밀하게 재조립하는 정비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설비 성능을 신포 수준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배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렸다.

정민숙 광양시 시설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광양



최신형으로 교체된 금이청암 신규펌프.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장 발생 부위를 사전에 발견해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수펌

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2배 적립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정부·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차상위계층 0~17세 아동까지 넓혀

고흥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저소득 가정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립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이 통장은 아동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적립(월 최대 10만 원 까지)해 주는 ‘1+2=3’ 매칭 구조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매달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가입 연령은 0세부터 17세까지이며,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만기 시에는 적립금을 학자금, 창업, 주거비, 결혼 등 자립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로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아동 409명의 가정에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미 가입한 아동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61-830-6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 ‘청렴 군민 감사관’ 2년간 군정 감사·조언

보성군이 군 정책을 감사·조언하는 ‘제1기 청렴 군민 감사관’ 7명을 위촉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신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군민 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는 주민이 직접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율적 참여 기반의 감시체제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행사는 ▲청렴 군민 감사관 위촉장 수여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 안내 ▲종합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방안 논의 ▲군정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관은 총 7명으로,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며 앞으로 2년간 군정의 감시자이자

조언자로 활동하게 된다.

청렴 군민 감사관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공무원 비위 제보 ▲주민 불편 사항 건의 ▲행정제도·절차 개선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며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 도입은 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

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제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며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국악·김영택·공예·김주용씨 구례군 첫 전통문화 명인·명장

구례의 첫 전통문화 명인·명장이 탄생했다.

구례군은 지난달 29일 ‘구례군 명인·명장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악과 공예문화 분야에서 김영택 씨와 김주용 씨를 각각 명인과 명장으로 선정했다.

이번 명인·명장 선정은 지역 내 장인과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구례군이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군의 의지가 담겨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명인·명장 선정을 위해 군은 전통문화·공예 분야 외부 전문가 등 9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번 국악 분야 명인으로 선정된 김영택 씨는 오랜 기간 지역 농악 발전에 기여하며 후학 양성에도 헌신해 왔다. 공예문화 분야 명장인 김주용 씨는 부채공예의 전통을 계승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월 선정자에게 명인·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사업장 인증서 부착, 군 홍보매체 게재, 축제·박람회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명인·명장이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구례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남만 넘치는 ‘여수밤바다 버스킹 축제’

15일 해양공원 일대... ‘버스킹 로드’ 등 10주년 프로그램 풍성

‘2025 여수밤바다 남만버스킹 페스티벌’이 오는 15일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여수밤바다 남만버스킹’ 10주년을 기념하고 광복절 연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여름밤의 특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열리는 행사는 총 30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로드’, 개막식, 스페셜 버스킹 축하공연, EDM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특히 오후 8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10주년 공연을 선보이며, 지난 10

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남만버스킹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여수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거리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 ‘버스킹 도시 여수’로서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여수의 낭만과 예술의 감성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킹 로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버스커는 오는 8월 10일까지 포스터 하단의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전통시장 경유 버스 운행

매달 4·9일 옥과 노선 운행...접근성 높여 시장 방문 유도0

곡성군이 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장남마다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노선 운행을 개시했다.

옥과 전통시장은 곡성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매월 4·9일 다양한 농산품과 생필품이 판매되며 지역 주민들과 인근 마을의 상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이번 노선 조정은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고령층 등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시장 방문을 유도하

고,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유 노선은 시장 방문객의 접근 동선을 고려한 경로로 운행되며, 특히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배차시간을 맞춰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한다.

한편, 곡성군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순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80세까지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1318명 추가 혜택

순천시가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80세까지로 확대한다.

시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지원 대상을 20~75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1차로 지원한 6291명 외에 1318명이 추가로 선정돼 지난 5일부터 본인 명의 농업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됐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공연, 문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 20만원의 행복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여성농어업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